

문법교육과 매체 언어 문화

김은성*

<차 례>

- I. 서론
- II. ‘매체’를 핵심어로 하는 문법교육의 의제 설정
- III. 문법교육의 새로운 변화 : 클리커라티들의 문법수업
- IV. 결론 : 급변하는 언어 문화 환경과 문법교육의 대응

I. 서론

일단 ‘문법’을 뒤로 밀쳐 두고, ‘매체 언어 문화’라는 기획 주제를 전면에 내세워 이 글의 방향을 기는해 보고자 한다. 국어교육학의 주요 연구 주제 중에서 ‘매체 언어 문화’는 매우 특이한 것으로 주목할 만하다. 이 주제는 굉장한 속도로 주요 연구 주제로 떠올라 단기간에 걸쳐 폭발적인 주목을 받으며 그 영역을 확장·심화하여 안정화된 주제이다. 국어교육 연구사를 두고 볼 때, 안정화의 속도와 기간 면에서 이 주제를 넘어선 주제는 찾기 힘들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이 주제는 가치 면에서 중요하면서도 더 이상 참신하지 않다. ‘매체’와 함께 ‘참신’의 이미지가 저절로 떠오르

*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교육과, martina@ewha.ac.kr

거친 원고를 수고롭게 검토해 주신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 올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부분은 온전히 필자의 몫이다.

던 시기가 얼마 지나지 않은 어제라는 점을 되새겨 볼 때, 이와 같은 변화는 지금 이 주제를 적절하게 다루는 데 참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된다. 이 주제가 중요하면서도 새롭지 않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이제 이 주제가 ‘기반을 다진’ 주제가 되었다는 점을 의미하며 동시에 이전의 켜와는 다른 켜를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하는 점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부터는 앞서 다진 토대를 점검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새로운 방향의 문제 설정이 요구된다고 본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문법’이라는 세부 영역 속에서 매체 언어 문화를 다루되, 특히 ‘문법수업’이라는 구체적인 단위를 기준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그렇기에 출발점은 ‘매체 언어 문화’가 아니라 ‘문법교육’이 된다.

문법교육 연구의 궁극적 지향점은,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좋은 문법수업이다. 교실 현장에서 문법수업이 잘 이루어져, 즉 교사는 문법을 잘 가르치고 학생은 문법을 잘 배워서 두 주체가 함께 성장의 기쁨을 나누는 데 문법교육 연구가 기여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교육 연구는 항상 문법수업이라는 현장, 이 가늠할 수 없는 역동성을 가진 세계를 주시하고, 면밀하게 관찰하며, 때로는 이 세계에 기꺼이 참여하기도 하면서 수행되어야 한다. 이 세계의 체계와 규칙, 움직임과 변화에 대해 둔감하다면 좋은 문법수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이론적 힘을 원천적으로 가질 수 없게 된다.

이때, 관심의 초점은 여러 각도에서 조정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매체’라는 렌즈를 통해 문법수업을 다음과 같이 구조화하여 검토함으로써, ‘문법교육과 매체 언어 문화’라는 주제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 문법수업의 물리적 환경

ICT 기반 교실 환경(컴퓨터, 텔레비전, 비디오, DVD,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캠코더, 빔 프로젝터, 디지털 완성물을 제작할 수 있는 각종 소프트웨어 등)

- 문법수업의 재료
다양한 매체에서 발견되는 언어 자료(텔레비전의 광고, 신문 칼럼, 인터넷 개인 블로그의 동영상 자료, 설치 미술 작품의 비디오 텍스트 등)
- 문법수업의 두 주제
‘새로운 언어를 익혀야 하는’ 교사와 ‘새로운 언어를 타고난’ 학생(파워포인트 애니메이션 기능을 가까스로 익히는 교사와 디지털 저작물 생산 및 유포에 능한 학생)

II. ‘매체’를 핵심어로 하는 문법교육의 의제 설정

문법수업을 바라보는 세 개의 입각점(물리적 환경, 재료, 주제)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의제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 매체를 활용한 문법교육의 새로운 전개 방향은 무엇인가?
- 매체 언어에 대한 문법교육의 유연한 확장과 심화를 위한 밑그림을 어떻게 구안할 수 있는가?
- 문법수업 소통 주체의 매체언어적 정체성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1. 매체를 활용한 문법교육의 새로운 전개 방향

문법수업의 물리적 환경에 초점을 두고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은, 곧 매체를 활용한 문법수업이다. 이것은 매우 실체적이면서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쉬운 부분이다. 이것은, 과학 기술의 혁신적 발전 속도와 비례하여 교실에서 사용되는 교육 도구 및 장치들을 문법수업에서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이다. 다음과 같은 예가 이에 속할 것이며, 특히 주목할 부분은 ‘컴퓨터를 이용’ 또는 ‘컴퓨터…통해서’이다.

-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꿀맛닷컴’에서 표준발음에 대해 학습함
- 컴퓨터와 연동되는 대형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용언의 불규칙 활용을 요약한 한글 문서를 보면서 교수·학습함

여기서 컴퓨터는 칠판과 과도, 용판 등을 대체하는 새로운 수단적 도구이다. 이와 관련하여 문법교육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설정할 수 있다.¹⁾

- 연구문제 1. 어떤 매체를 활용하여 문법수업을 할 것인가?
- 연구문제 2. 매체를 활용하여 문법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연구문제 3. 매체를 활용한 문법수업의 효과는 어떠한가?

이 문제들은 매체 관련 문법교육 연구문제 중에서 매우 고전적인 것에 속할 것이다.²⁾ ‘매체’를 TV, 컴퓨터 등등 가시적인 물성(物性)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문법교육이라는 기존의 공간에 매체라는 새로운 외부의 것을 들이는 구도를 취하고 있는 이것들은, 이미 ‘매체’에서 ‘매체 언어’로 초점이 옮겨 가기 이전의 1차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질적 가중치를 받기 힘들어 보인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따지면 이러한 가중치는 타당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수업을 고려하면 딱히 그렇지도 않다. 어떤 매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모든 문법수업의 설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
- 1) 이러한 연구문제는 실상 문법교육 분야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매체’와 ‘문법’이라는 주제어를 데이터베이스 검색에 넣으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등 각 언어의 문법수업에 매체를 활용하는 방안과 효과가 활발히 논의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국외 연구물 목록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매체’는 문법교육 연구에서 매우 대중적인 연구소비가 된 것이다.
 - 2) 연구문제 1~3에는 다음과 같은 가정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다.
 - 전통적인 방식의 문법수업은 재미없지만, 매체를 활용하면 학습자들이 흥미를 느낀다.
 - 매체를 활용한 문법수업은 그렇지 않은 문법수업보다 효과 면에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결과를 보일 것이다.

엄밀히 말하여 세상에 매체를 활용하지 않는 문법수업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³⁾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대부분의 현장 교사들은 매체 활용에 대해 특유의 견해를 가지고 자신의 문법수업을 설계·실행한다는 점에 다시 한 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⁴⁾ 결국, 매체를 문법수업 설계에 항상 꼭 고려해야 할 상수항으로 놓는 인식적 재조정 작업이 요청된다 하겠다.

이렇게 기본 관점을 설정하면 매체 활용 문법교육에 대한 현재적 인식의 문제점이 두 가지 국면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첫째, 현재 문법교육에서 ‘매체 활용’의 수사적 의미가, ‘학습자가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문법수업을 위한 특별한 동원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이다. 매체의 활용 여부에 따라서 문법수업의 흥미도가 절대적으로 달라진다고 가정하는 것은, 학습자의 내재적 동기화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못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매체 활용 여부’와 ‘매체 활용의 적절성’의 차이를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으리라 본다. 만약 특정한 문법수업이 재미가 없어 학습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데 실패했다면, 그 원인은 매체 문제를 포함한 수업 설계 및 실행의 제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데 있는 것이며, 이때의 매체 문제는 ‘매체를 활용하지 않았다’보다는 ‘매체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했다’로 귀결되어야 맞다. 재확인하건대, 세상의 모든 문법수업에는 매체가 활용되기 때문이다.

둘째, 기존의 매체와 새롭게 등장한 매체를 두고, 시간적 순서에 따라 ‘매체’라는 이름표를 선택적으로 붙이고 있다는 점이다. ‘매체’에 대해 특

3) 웅변가를 길러내기 위한 로마 시대의 문법수업에서부터 훌륭한 신사를 길러내기 위한 중세의 문법수업을 거쳐 우주인까지 만들어낸 현대의 문법수업에 이르기까지, 문법수업에 ‘매체’가 없었던 적은 없다. 매체는 항상 있어 왔다. 라틴어 문법 교사의 목소리, 구텐베르크의 인쇄술로 찍힌 종이책 도나투스(아동용 라틴 문법 교과서), 맞춤 설정한 시간 간격에 맞게 재생되는 통사론 PPT 슬라이드까지, 매체는 다만 변화해 왔을 뿐이다.

4) 다음과 같은 교사의 판단을 그 가상적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 “내 수업에서는 칠판을 이용한 문법 개념 구조도 그리기의 시각적 전략을 적극 활용하겠다.”
- “이번 수업에서는 PPT 슬라이드를 좀 만들어 보여 주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별한 수사적 의미를 부가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그 의미에 충실할 때, 책과 칠판도 매체이고, 텔레비전도 매체이다. 전자를 매체를 활용하지 않은 전통적 수업의 수단으로, 후자를 매체를 활용한 새로운 수업의 수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체’를 적절하게 다루는 방식이 아니며, 더 나아가 문법수업에 맞게 매체 요소를 다루는 데 지혜를 더할 수 있는 가능성도 극히 낮은 방식이라고 생각된다. 매체의 사적 스펙트럼 속에서 특정 매체는 절대치를 가지지 못한다. 이와 같은 객관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매체 활용 문법교육에 대한 생산적 접근이 가능해진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매체를 활용한 문법교육 부문은 다음과 같이 발전적으로 검토되고 그 양이 누적되어서 그 결과가 메타분석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매체 활용 문법수업의 조건과 방법의 세부적 설계
- 매체 활용 문법수업의 주제별, 상황별 효과 검토

특정 매체의 종류에 따라 문법수업을 달리 설계할 수 있어야 하고 문법수업의 특정 주제에 따라 적절한 활용 매체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효과적인 변주를 위해서는 세부적 조건에 따라 섬세하게 분화되어 집적된 결과물이 꼭 필요하다. 각 세부 주제에 따라 연구 설계를 달리 하고 모아진 데이터의 종류와 질에 따라 구체적인 교수학적 판단이 가능하게끔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매체 활용과 문법을 연결하면서 ‘구체’와 ‘상황적 조건’, ‘세부’ 등등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문법’의 특수성에 기반한 매체와의 연결을 도모해야 할 최우선적 가치로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웹 기반 교재와 종이책 기반 교재로 문법을 배우는 학습자 시각에 대해 연구한 Jarvis와 Szymczyk(2009)는 이러한 점을 잘 보여준다.⁵⁾ 두 교재 중에서 어떤 것을 자

5)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컴퓨터의 광범위한 유용성이 부각되는 변화된 작금의 맥락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학습자에게는 잘 만들어진 구식의 지식식 문법책이 여전히 중요한 위상을 가진다(Jarvis와 Szymczyk, 2009 : 8).”

주 보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매우 인상적이다. ‘매우 자주’에 해당하는 척도에 웹기반 교재보다 종이책 기반 교재가 6배 많은 수치가 나왔고, 웹 기반 교재는 주로 ‘때때로’ 참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에 대하여 반구조화된 인터뷰에서 응답자들은 웹 기반 교재는 흥미롭기는 하지만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점, 책에 비해 순서가 일목요연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주지하다시피 문법은 곧 체계이다. 체계로서 문법의 실체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면 온전한 문법 이해는 힘들어진다. 그러므로 비선형적인 웹 기반 교재의 특성은, 다른 분야에서는 잘 들어맞을 수 있어도 문법 교수·학습 분야에서는 또는 특히 체계를 강조하는 문법수업에서는 특수하게 조정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 조정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대문법→매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이미 나아간 상태이다.

“컴퓨터는 과연 ‘이용’되고 ‘활용’만 되는가? ‘문법’은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오로지 답은 그릇만 바뀌는 것인가?(매체→문법)”

이 질문은 새로운 테크놀로지로서 ‘매체’를 한정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변화는 수업의 질성(質性)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원인일 수 있다는 가정이 시작되는 실마리이다. 컴퓨터로 담아내는 문법 내용과 분필로 써 가면서 설명하는 문법 내용은 주제는 동일한 피동법이라 할지라도 그릇이 달라짐으로써 담음새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담음새가 달라짐에 따라 전달 의미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런 인식에 도달하게 되면 활용 도구로서의 매체를 넘어서서 새로운 언어 생태를 구성하는 생산적 환경으로서의 매체에 주목하게 되고, 이로써 곧 문법교육 내용으로서 매체 언어를 고려하게 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2. 매체 언어에 대한 문법교육의 유연한 확장과 심화

매체 언어에 대한 문법교육적 관심은 곧, 문법수업의 내용으로서 매체 언어를 다루는 것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가장 최근에 간명하게 제시된 내용이다.

<문법> 과목에서는 ‘의사소통 현상, 매체와 의사소통의 관계를 이해한다.’,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의 매체에 나타난 언어의 표현 원리와 효과를 이해한다.’, ‘매체에 사용된 언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매체 특성에 적합한 언어 표현을 구사한다’ 등을 다루고 있다. 의미를 나타내고 텍스트를 구성하기 위해 언어와 언어 이외의 다양한 기호(그림, 사진, 도표, 동영상 등)과 결합하는 복합 양식 표현(multimodal expression), 텔레비전,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의 언어 사용 방식과 매체로 인해 생겨나는 언어 문화에 대한 비판적 성찰 등을 언어에 관한 지식과 태도를 다루는 차원에서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정현선, 2009 : 37).

위의 내용을 문법교육 연구와 관련하여 관점의 측면에서 상세화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 규범적 관점 : 인터넷 언어 사용의 문제점과 순화의 방향, 방송 자막의 오류와 문제점 등
- 기술적 관점 : 광고 언어의 특징, 신문 표제어 구성 원리, 방송 언어의 구어와 문어의 결합 양상 등
- 비판적 관점 : 신문 광고에 드러난 이데올로기의 문제, 언어적 차별과 유표화 방식 등

문법수업의 재료인 매체 언어를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연구 주제 또는 수업 주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일차적으로, 문법교육의 내용 논리를 유지하면서 영역을 매우 넓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

1) 규범적 관점

규범적 관점에서 매체 언어를 다루는 문법교육의 내용은 전통적인 인쇄 매체 자료에 적용되었던 ‘옳음과 그름의 가름’이 기본적으로 유지된다. 규범적 정확성은 매체의 변화에 상관없이 적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가지 독특한 점은, 이 기준이 달라진 매체의 특수성에 준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쇄 매체 자료에 준한 규범성이 절대적 기준으로 적용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오염된 것, 따라서 아동들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이라는 인식으로 매체에 대해 접근했던 전통적 관점까지 결합되면 다음과 같은 논의가 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은 채팅용어의 부분별한 사용은 단어의 원형을 변형시킴으로써 문법의 영역을 현저히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중략)... 미래의 사회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통신 정보 사회가 주도할 때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변형된 어휘에 부분별하게 노출되어 의사소통에 중요한 지장을 일으키게 될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권구천, 1999 : 122).

권구천(1999)의 논의는 현장 교사의 입장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새로운 매체에 속하는 인터넷 등의 장(場)에서 규범을 비롯한 국어의 틀이 흔들리면서 국어가 ‘훼손’되어 가며 소통성도 현저히 줄어들 수 있다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비단 교육 장면에서만 존재한 것은 아니다. 적어도 매체 언어 자료를 본격적인 연구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았던 초기의 이론언어학의 시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⁶⁾ 이것은 매체 언어를 임시적으로 일탈된 특수한 양상으로 보았을 뿐, 이러한 것들이 나오게 된 특정한 언어 환경의 형성, 그러한 환경에 적응하고 더 새로운 방향으로

6) 다음 기술을 참고할 수 있다.

“초기의 통신 언어 연구는 규범적 관점에서 일상어와의 차이점을 인상적, 단편적 방식으로 지적하거나 비규범적 표현들을 제시하는 수준이었다(이정복, 2005 : 40).” 또한 정확성을 따지는 규격적인 규범성을 중심으로 하는 태도에서 더 나아가, 전자 매체 언어 자료에 대해 연구 가치를 부여하지 않은 부정적 시각도 존재했음을 같은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정복, 2005 : 45 참조).

환경을 변화시켜 나가는 언어 주체의 능동적 변화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초기 인식 양태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매체 언어를 특수한 장에서의 이유 있는 변이로 보는 관점을 확장적으로 수용한다면, 4대 어문규정으로 대표되는 인쇄 매체 언어 중심의 규범이 모든 매체 환경에 일괄 적용되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을 것 같다. 이미 이 어문규정 자체가 해석 가능하고 예외가 있는 규정이라는 점은 인쇄 매체의 규범 적용에서도 자연스럽게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그렇다면 다른 매체 언어 환경에서의 규범성 역시 유연하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인쇄 매체 중심의 언어 규범이 언어 사용의 규범성을 통어하는 기본틀로서 작용하되, 특정 매체 환경에 따라 유연성 있게 적용되는 사례를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 ‘문광부V방송법V개혁안V마련’이라는 헤드라인은 신문기사이나 방송기사이나에 따라 띄어쓰기가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신문지면에서는 글씨 크기, 장평 등 기사 편집 공간을 최대한 조정하여 띄어쓰기를 원래대로 고수하여 실을 수 있는 확률이 높지만, 방송뉴스에서는 화면에 잡히는 아나운서 모습의 우측 상단에 어깨걸이 형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문광부V방송법개혁안V마련’ 정도로 실리거나, 이마저도 소화할 공간이 부족하면 아예 다른 표제어로 바뀌어 쓰일 수 있다.

이런 사실은 언어의 규범성이라는 기준이 포괄하는 매체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확장·변형될 수 있다는 생각을 지지해준다.⁷⁾ 매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언어 행위 양식에 대한 정의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

7) 띄어쓰기는 종으로 옮겨지는 문자 매체의 읽기 가독성을 높여주는 어문 규범이다. 석자공이 활자를 심어 책을 찍어내는 시기에 필자가 읽기 가독성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띄어쓰기 정도밖에 없었다. 그런데 자유롭게 문서를 작성하고 편집하여 인쇄할 수 있는 요즘에 필자들은 읽기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글자의 장평, 자간, 행간의 넓이, 행과 문단의 위치, 상하좌우의 여백까지 자유자재로 설정할 수 있다. 어절을 기준 단위로 하는 띄어쓰기가 오로지 수용의 측면에 국한하여 전통적인 문법적 개념을 활용할 수 있는 어문규범이라고 한다면, 위에서 열거한 편집 요소들은 생산의 측면까지 포괄하는 확장된 것으로서 새로운 문법, 즉 문장과 글의 구성 원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서 사고의 유연성은 적극적으로 요청되는 덕목이라 하겠다.⁸⁾ 그러므로 규범적 관점에서 언어를 이해할 때 ‘매체’라는 변인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면, ‘정오(正誤)의 구분’에서 출발하기보다는, 해당 매체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의 ‘적절함의 정도성’에서 출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라 전망한다.

2) 기술적 관점

기술적 관점을 견지할 때 문법교육에서는 매체 언어 문화와 관련하여 한편으로는 교육내용의 확장을,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내용의 심화를 꾀할 수 있게 된다. 두 가지 점을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하자.

① 확장

기술적 관점에서 매체와 관련하여 문법교육에서 취할 수 있는 확장적 태도 중 가장 중요한 점은 언어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데 적극성을 띠는 것이다. 문법은 언어 자료를 분석하여 특정 언어 현상을 분석적이고 논리적으로 기술한 체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 중심성은 문법 기술에서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이요, 더불어 문법교육에서도 이는 동일하게 나타난다. 앞으로도 문법교과에서 언어를 중시하는 경향은 쉽게 사라지기는 힘들 것이다. 다만 그 의미의 넓이를 넓게, 그 의미의 두께를 두터이 함으로써 여러 기호들이 정합하면서 만들어내는 의미의 세계를 읽어내고 경험하는 교육적 활동을 제공하게 되리라 전망한다. 이 점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된다.

첫째, 문법교육은 언어를 기호적 관점으로 재위치시키는 확장을 꾀할 수 있다. 즉, 소리언어와 문자언어라는 대표적인 두 가지 모드에 기반을 둔 언어에 대한 정의를, 기호적 관점 아래 인간 의사소통 과정에서 의미

8) 호주 빅토리아 주 교육과정에서는 ‘쓰기’를 “인쇄 매체, 전자 매체, 그리고 공연물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텍스트를 구상·계획·조직·편집·출판하는 능동적인 과정(김대희, 2008 : 288에서 재인용)”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생산 및 수용에 기여하는 모든 형식의 기호에 대한 것으로 확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⁹⁾ 이것은 문법의 핵심 대상으로서 언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호라는 언어의 상위 범주적 수준에서 더욱 더 면밀하게 언어를 검토할 수 있는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그 자체로 자족적인 체계로서 언어를 강조하기보다는, 인간 의사소통 행위 안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는 특수한 기호로서의 언어를 재위치시키는 것과 맞닿아 있다.

둘째, 문법교육은 의미를 구성하는 여러 기호에 대한 메타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문법교육에서는 언어 자체에 대해 자기지시적으로 설명하는 메타설명체계를 다루기 때문이다. 여타의 기호의 구조와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틀과 방식이 필요하다. 기호 자체에 대한 가치 평가가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복합문식성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기호를 메타적으로 다루는 방식의 전통과 정교함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값어치를 매길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문법은 독보적 위치를 점한다. 또한 다른 기호들에 대한 또는 다른 기호들을 포함한 메타적 기술이 언어 기호로 이루어지는 것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¹⁰⁾

한편 기술적 관점에서 문법교육에서 매체 언어를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개념으로 ‘변이(variation)’를 꼽을 수 있다. 변이란, ‘한 언어 내에서 발음, 문법, 또는 단어 선택 등에서 나는 차이(Richards, Platt & Platt, 1992 : 397)’이다. 특정한 장(場)이나 상황맥락에서 한 언어공동체의 구성원이 자신이 구사하는 언어를 조금씩 바꾸어 사용하는 경우에서 이 개

9) 기호적 관점은 매체 언어 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기반이다. 실행될 수 있다. 매체 언어 교과가 따로 설정되지 않는 구도 아래에서, 현재의 국어과 내용 영역 체제에서는 이러한 기호적 관점에 대해 직접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영역은 문법 영역이 가장 적합한 영역일 것이다.

10) 정혜승(2008 : 164)에서는 기호학적 관점의 국어과 교육과정 모델을 제시하면서 핵심 개념으로 ‘매체 변화(transmediation)’와 ‘언어의 메타 기호적(meta-sign) 기능’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언어는 그 어떤 기호에 비하여 자기 지시(self reference)와 자기 반성(self reflection)에서 유연성이 강한 기호라고 한다.

념의 실재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의 균질하고 이상적인 언어를 상징하고 기술한 문장 차원의 문법에서 대치로 인해 성립되는 계열 관계에 비견될 수 있을 것이다. “너는 딸기를 먹었니/ 씻었니/ 땀나?”에서 술어 자리에 같은 자격의 단어가 갈아들 수 있는 것처럼, ‘너는 딸기를 먹었니?’라는 문장 역시 해당 문장의 발화자가 맞닥뜨리는 다양한 상황에서 명제적 의미는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다양하게 변형될 수 있는 것이다. 즉 해당 화자는 다양한 변이 문장을 이러한 명제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 목록(linguistic repertoire)로 갖추고 상황에 따라 그 목록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이것들은 거시적 차원의 계열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변이 개념은 꼭 매체 언어를 고려하면서 비로소 주목하게 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언어학 등의 거시언어학에서 다루어졌던 것이다. 하지만 ‘매체 언어’를 문법교육의 내용으로 포함시키고자 할 때 이 개념은 절대적 중요성을 가진다. 매체 언어에 대한 기술적 탐구의 기본은, 매체라는 변인으로 인해 한국어가 또 다른 특수한 변이를 겪게 된다는 점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이다. ‘변이’라는 개념적 필터를 거침으로써 매체 언어의 다양한 측면을 본격적으로 기술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신문 언어의 특수성, 광고 언어의 특징 등의 학습 과제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상이 기본적으로 매체적 변인에 의한 변이이며, 이러한 변이는 해당 매체의 특수성이 반영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이해시킬 때, 문법교육적 견지에서 기술적 관점의 매체 언어 이해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변이’ 개념은 앞으로 더 상세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문법교육의 과제라 할 수 있다.

② 심화

매체 언어는 문법교육에서 주목하는 언어 현상을 매우 다양하게 하여, 특정한 언어 현상에 대해 심화된 앎의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문어 위주, 인쇄 매체 위주의 기존 언어 환경에서는 보기 힘든 언어 현상이 새로운 매체 환경에서 매우 다양하고 빠르게 만들

어지고 확산되기 때문이다. 단어 차원의 예를 들면, 기존 한국어 조어법으로는 설명되지 않은 조어 규칙이 사이버 상에서 매우 역동적으로 만들어지고 짧은 시간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것의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임시어의 지위에서 출발하지만, 언어공동체 성원의 지지를 받으며 새로운 생산성을 가진 단어 형성 요소로 인정받게 되기도 한다.¹¹⁾ 이렇게 되는 데에는 사이버 세계의 생리와 사이버 공동체에 통용되는 논리가 작용하게 마련이다.

새로운 장에서 새롭게 형성된 언어 현상은 대체로 기존 문어 중심 문법 기술과 비교·대조하면서 그 자체만의 특성을 밝히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체계와 구조가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은 곧 이 현상들을 문법적으로 적절하고 타당한 기술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때 가능하다. 즉 이것들을 정통적이지 못하고 임시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언어 세계에서 발견되는 일반적인 언어 현상 중의 하나로 바라보는 인식적 전환이 뒷받침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이론국어학에서 ‘매체국어학’이라는 하위 분야를 설정하거나, 새로운 매체 환경 변화에 따른 국어학의 연구 방향 및 연구방법론을 모색하는 등의 변화를 꾀하는 노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홍운표, 2006; 강창석, 2006 등).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모색 속에 매체 언어 환경을 고려한 언어 자료에 대해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그 특징을 밝히고자 하는 특수 주제 중심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하겠다.¹²⁾ 이와 같은

11) 관련 연구로 구본권(2001), 시정곤(2006), 송민규(2007) 등을 참고할 수 있다.

12) 다음의 연구들은 매체 기반 국어 연구라는 주제를 다룬 연구의 전부는 아니지만, 형태론, 통사론, 화용적 측면 등의 특정 초점을 가지고 매체 언어 자료를 본격적으로 다룬 것들이다. 특히 이 연구들은 과거의 인쇄 매체 언어 자료를 보는 눈으로 새로운 매체 환경에서 생산된 언어 자료를 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 오용 분석에 치중했던 기존 연구 경향과 확실히 차별화된다. 이러한 연구의 한 흐름은 비록 복합 기호의 분석이 아닌 언어 기호의 분석에 아직까지 머물고 있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다중 매체 환경의 변화를 표면적 변화가 아닌 질성적 변화로 받아들이고 연구의 영역을 확장·심화해 나가는 국어학의 변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된다.

국어학의 연구성과는 매체 언어 환경에서의 문법교육, 특히 국어를 분석하여 그 구조와 체계를 이해하는 미시적인 부분의 교육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문법책에서 제시하였던 언어 자료 및 설명이 전형적인 인쇄 매체 기반의 것, 인위적으로 가공된 문장에 국한되어서는 곤란하다. 복합문식성에 기반한 다양한 매체 언어를 다룬 것으로 바뀌어야 하고, 기반하고 있는 매체적 특성을 전제하는 언어 분석 활동의 특수성이 잘 드러나는 내용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3) 비판적 관점

문법교육에서 매체 언어 문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이, 비판적 시각에서 인간 의사소통행위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언어는 도관(導管)을 통해 순정한 상태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쓰는 주체의 가치, 목적, 태도 등에 따라 의도적이고 전략적으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언어 주체를 통해 만들어지는 언어적 결과물, 이러한 결과물로 인해 구성되는 인식과 실행의 구도 등에 대한 통찰력 있는 안목이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안목을 길러서 언어적으로 부당하게 대우받지 않는 언어 주체를 길러내는 것도 문법교육이 큰 몫이라 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학교 문법교육에서 이 부분은 거의 방치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적으로, 2007 개정에 이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언어에 대한 비판적 인식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내용이 매우 미미하게 마련되어 있음을 알

-
- 이기동·송민규(2005), 광고언어의 생성 단계(단어를 중심으로)
 - 장경현(2006), 인터넷 블로그에 나타나는 종결 어미 ‘-자(요)’의 용법과 의미
 - 시정곤(2006), 사이버 언어의 조어법 연구
 - 송민규(2007), 가상 공간의 신어 생성

<의미·화용 차원>

- 이정복(2004), 인터넷 통신 언어 경법의 특성과 사용전략
- 이정복(2005), 사회언어학으로 인터넷 통신 언어 분석하기

수 있다. 심화 선택 과목인 <독서·문법 I, II>를 검토하면, 완전히 일치하는 내용 항목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해석자의 적극성에 따라 관련 내용을 다룰 수 있는 내용 항목은 <독서·문법 I>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다음과 같다.

- 매체 언어활동에서 언어에 대한 태도가 중요함을 이해한다.
- 지역, 나이, 성별, 계층 등에 따른 다양한 언어 현상을 이해하고, 소통 장애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학술 담화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탐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이 내용 항목들은 ‘국어와 삶’ 범주에 속하는 것들로서 ‘일상 언어/매체 언어/사회언어/학술 언어’ 등의 장(場)에 따른 언어 변이에 대한 것이다. 이 중에서 매체 언어와 관련된 것은 첫째 항이다. ‘언어에 대한 태도’는 비판적 관점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규범적 관점 등이 포함된 포괄적 의미의 언어 태도로 간주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다만 교육과정 실행자의 적극적 해석에 따라 비판적 관점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수는 있을 것이다.

매체는 문법교육내용으로 비판적 언어 인식 활동을 구체화하는 데 가장 적합하고 좋은 지렛대이다. 또한 매체 언어 자체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도 문법적 분석 능력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이다. 특정 매체에서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 선택하는 언어 재료, 그것들을 의도에 따라 가공하는 특수한 방식, 그러한 방식을 취해 만들어진 언어적 결과물, 그리고 그러한 결과물로 소통되는 가치와 태도 등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언어적 결과물에 대한 문법적 분석을 취하고, 이차적으로 그러한 결과물을 산출해 낸 특정한 언어 행위를 분석하면서 종합적이고 다차원적인 매체 언어 인식 활동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점을 적극적으로 취하기 위해 우리는 현재보다 더 적극적으로 ‘매체’라는 고리를 이용하여 문법교육 내용 설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의 검토에 따르면, 매체 언어라는 신세계를 발견함으로써 문

법교육은 내용적인 면에서 평면적으로는 매우 많은 공간을 확보하게 되고, 입체적으로는 문법에서 주목하는 언어의 형식과 구조에 대해 훨씬 더 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깊이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¹³⁾ 그렇지만 남은 문제가 하나 더 있다. 그것은 바로 언어의 문제를 다룰 때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면서 문법교육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언어적 정체성의 문제이다. 다음 절에서는 이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3. 문법수업 소통 주체의 매체언어적 정체성의 문제

오직 ‘매체’ 또는 ‘매체 언어 환경’이라는 앵글로 지금의 문법수업의 한 장면을 잡아 본다면, 그 장면은 [‘디지털 이민자(Digital Immigrant)’와 ‘클릭러타(Clickerati)’의 문법수업]이라는 씬으로 잡힐 수 있을 것이다.

- 디지털 이민자(Digital Immigrant) : 새로운 디지털 테크놀로지 이전의 오래된 테크놀로지를 접하면서 자란 성인
- 클릭러타(Clickerati) : 태어나면서부터 넷(net)에 정통한 수준에 이를 수 있는 환경에서 자라고 비선조적인 디지털 세계에서 매우 안락하게 살아가는 아이들(Makin, Díaz, & McLachlan, 2007 : 169)¹⁴⁾

1990년대에 태어나서 인터넷 이전 시대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인 수많은 클릭러타들은 만년필, 손글씨, 원고지, 인쇄를 위한 교정지의 시대

13) 확장과 심화 방식은 취사선택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근본적으로 심화를 중심으로 하면서 확장을 고려하는 정도의, 양방향적 동시 진행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본다. 확장의 방식으로만 매체 언어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면 매체 자체가 갖는 속성에 배치되면서도 동시에 문법교육의 정체성도 흐려지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심화의 방식으로 소화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소화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위주로 확장의 방식을 취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14) ‘클릭러타’는 지식인 계급을 뜻하는 ‘Literati(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의 조어방식을 따른 신어로 보인다. ‘클릭러타’라는 용어 외에 ‘디지털 원어민(Digital Native)’이 쓰이기도 한다. 이것은 ‘컴퓨터, 비디오 게임, 인터넷의 디지털 언어를 모어로 구사하는 원어민 화자(Prensky, 2001 : 1)’를 가리킨다.

경험하고 디지털의 시대에 적응하여 살아가고 있는 디지털 이민자인 교사 아래서 국어, 더 좁게는 문법을 배운다. 이들에 대한 이러한 명명은 근본적으로 전자는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부여받은 디지털 언어(digital language)를, 후자는 모어가 따로 있되 적응을 위해 애써서 익힌 중간언어로서의 디지털 언어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한다. 디지털 이민자의 경우, 미국에 거주하는 독일 이민자가 자신의 언어적 지문(指紋)인 독일식 발음과 악센트를 지우지 못하는 것처럼 아날로그 언어가 저층에 깔린 채로 소통한다(Prensky, 2001 ; Hill, 2004 ; Makin, Díaz & McLachlan, 2007).

문법 교사가 선택한 매체 언어 자료가 복합 모드의 표현물이라 할지라도, 선택한 교사의 의도는 그 중에 하나의 모드, 즉 문자 언어 표현의 ‘식욕을 돋구는’의 ‘돋구는’의 활용 오류를 확인하는 데 있고, 그것을 접한 학생들은 클리커라티의 감수성으로 그것을 넘어선 다른 의미의 정보를 순식간에 비선조적으로 처리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수업 사태는 교육적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교사의 의도와 선택, 학생의 수용과 반응은 전혀 다른 지반 위에서 이루어진다. 디지털 세대 학습자의 리터러시는 전혀 다른 새로운 리터러시의 발달 양상을 보인다는 점은 이미 많이 밝혀진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매체 언어 환경의 변화와 문법’이라는 주제는 문법수업 주체들의 매체언어적 정체성과 감수성의 차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지점을 통과해야만 그 의미가 충실히 드러난다고 본다.¹⁵⁾

우리는 이제까지 국어교육에서 ‘매체’를 소화해 오면서, ‘매체 언어’에 대한 탐구를 거듭해 왔지만, ‘매체 언어’에 자동적으로 부가되는 교사와 학습자의 언어적 정체성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언어 변이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자신의 변화되는 정체성을 언어로 표현하고자 하는 인간 언어 활동의 특수성 때문임을 고려할 때, 이와 동시에, 소통되는 언어 변이를 통해 순간순간 표현되고 해석되는 정체성이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문법교육과 매체 언어 문화 관계를 다루는

15) 최지현(2003)은 수년 전에 이 문제를 매우 정확하게 지적한 바 있다.

문제에서 언어적 정체성은 빠질 수 없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런 견지에서 문법교육에서 특정한 매체를 전제한 언어 현상을 다룰 때, 그러한 현상을 교수 내용으로 선택한 교사는 자신과는 다른 눈과 마음을 가진 학습자와 완전히 일치하는 언어적 정체성 토대 위에서 수업을 준비할 수는 없다. 앞서 언급한 Jarvis와 Szymczyk(2009)의 연구 결과가 성인 문법 학습자를 대상으로 나온 것임을 감안하면, 종이책 문법 교재와 웹 기반 문법 교재 중에서 무엇을 선호하느냐의 문제를 근래의 클릭라티들에게 물어볼 경우 후자를 선택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것은 한자 혼용 인쇄물을 읽을 때와는 달리 한글 전용 인쇄물을 읽을 때 글의 골자를 한눈에 파악할 수 없다는 앞선 세대의 토로를 접하고도, 그러한 시각적 파악의 어려움을 미루어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 세대의 단절감과도 상통하는 것이다. 이러한 간극은 교사와 학습자의 사이에서 구체적 양상만 바뀔 채 상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문법교육에서는 매체 언어 문화와 관련하여 ‘언어적 정체성’이라는 기본 개념을 화두로 던지면서, 매체언어적 정체성의 차이에 기반한 교수학적 기획의 최적 경로를 찾는 데 일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Ⅲ. 문법교육의 새로운 변화 : 클릭라티들의 문법수업

지금까지 검토 내용은 결국은 전망 혹은 논리적 가설일 뿐이다. 이에 새로운 세대에 의해 준비된 문법수업의 한 예를 보면서 추상적인 전망을 좀 더 구체화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대학의 <문법교육론> 시간에 문법 탐구학습지도안을 작성하는 조별 과제를 과목이 개설되는 해당 학기마다 부여한다. 과제의 진행 구조는 다음과 같다.

[지도안 초안 짜기]→[발표 및 피드백]→[피드백 반영한 최종안 짜기]

이 수업에서 수강생은 배운 문법 내용을 바탕으로 탐구학습에 적합한 주제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지도안을 짤 수 있다. 주제에 적합하다면 탐구 학습모형을 원형으로 하면서 다른 교수법적 변형을 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제 중복도 허용한다. 주제가 같더라도 실제 탐구학습은 매우 다르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제를 잡는 과정부터 최종 지도안을 완성하기까지 전 과정을 오프라인 수업과 온라인 팀게시판을 통해 교수가 관찰하고 조정한다. 형태론 분야의 경우, ‘형태소의 종류’, ‘품사 분류’, ‘품사의 통용’, ‘용언의 활용’ ‘합성법과 파생법’ 등이 주된 주제로 선택되곤 한다. 여기서는 미래 예비교사들의 기능성과 특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보이는 2009년 2학기 <문법교육론> 수강생의 ‘조어법(파생법/ 합성법)’에 대한 수업지도안을 일례로 삼아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문제의 A조(연구자 가칭)는 조어법의 주제 영역으로 잡고, 세부 주제를 ‘인터넷 세말의 조어법의 원리 탐구’로 잡았다. A조가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개월 동안 작업한 수업지도안 완성 과정과 결과를 앞서 논의한 세 가지 요소를 기술 기준으로 삼아 논의하고자 한다.

1. 매체를 활용한 문법수업

A조는 ICT 활용 수업 환경을 전제하고 해당 수업지도안을 작성하였다. 인터넷 세말을 탐구 활동의 주자료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드러낼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택은 지도안의 다음 부분에 잘 드러나 있다.

교 실 환 경	• 컴퓨터에 인터넷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 PPT와 칠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교실환경이 갖추어졌는지 확인한다. * 학생들은 4~5명씩 모둠을 지어 앉는다.
------------------	--

2. 매체 언어에 대한 문법수업

해당 수업지도안 구성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과 목	심화 선택 <문법>
수업주제	인터넷 새말의 조어법 원리
대상자	고2 심화반 학생(조어법의 일반 원리를 배운 상태)
수업모형	토의·토론과 결합된, 완화된 탐구학습 모형(교사 개입 정도가 큼)
학 습 목 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파생어와 합성어의 형성 원리를 정리하여 말할 수 있다. 2.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언어자료를 단어 형성 원리에 따라 분석할 수 있다. 3. 신어 또는 유행어의 단어 형성 원리에 대해 말할 수 있다. 4. 자신의 언어생활을 반성할 수 있다.
수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새말의 조어법 원리를 탐구하기 위한 언어자료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된장녀, 건어물녀, 시창녀, 원소녀 / 초식남, 육식남, 품절남, 원소남 등 2. 성인돌, 개그돌, 집승돌 등 3. 인습, 도촬, 지못미, 넘사벽, 킹왕짱 등 4. 즐, 애자, 재첩, 완전 </div> • 학생들이 세 가지 부류로 위의 자료를 나눌 것으로 가정함 파생법 / 합성법 / 기타 형성 원리

소략한 개요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A조가 탐구학습 주제를 찾고, 학습자의 탐구활동 전개 방향을 예상하면서 언어 자료를 선정하여, 예상 결론으로 나아가는 틀을 상당히 공을 들여 마련했음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는 탐구학습모형에 문법교육내용을 짜맞추는 것보다는, 탐구학습모형에 가장 적합한 문법교육내용을 찾아, 탐구할 동기와 탐구할만한 거리를 제공하는 주제로 다듬어서 탐구학습 모형에 준한 문법수업을 설계할 것을 수강생들에게 강하게 요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수강생들은 일반적 수준의 문법교육내용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탐구학습용 문법교육내용에 걸맞은 주제 찾기에 집중했고, 그 과정에서 선택한 주제의 교육적 정당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 A조가 이러한 주제를 잡아 수업을 설계

하게 된 배경을 학기말에 제출한 최종 포트폴리오의 부분에서 발췌하여 제시한다.

교과서는 고등학교 국어교과 심화 선택 과목으로서, 학습자들이 국어를 규범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교과서는 현재 학교 문법에서 정한 체계를 결과론적으로 학습하고 이를 활용하여 실제 언어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되어 있는데, 정작 실제 교과서를 학습하는 10대의 학생들이 인터넷 등의 공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새말에 관해서는 이렇다 할 예시 및 설명이 되어 있지 않다.

이는 인터넷 새말에 비속어와 같은 저속한 느낌을 주는 것들이 많고, 쉽게 생겨나고 쉽게 사라지는 특성 때문이라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예들도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다양한 언어자료에 속한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언어자료를 만들어 내고 사용하는 주 계층이 바로 10대라는 점, 그리고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재미있는 실생활 예에 적용함으로써 체계를 확실히 정교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탐구활동으로 구성할 만하다고 하겠다.

A조는 국어 조어론을 분석적 관점보다는 형성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단어에 대한 지식이 실제 새말을 만들어 내는 원동력으로 쓰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새말’을 선택했다. 그리고 ‘실제 언어 자료’의 측면에서 ‘새말’을 수업 대상으로 가정한 중등 학습자의 언어라 할 수 있는 ‘인터넷 새말’로 다시 한정하였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A조는 인터넷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말이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파생법과 합성법으로 명확하게 나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을 명료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해 조사하면서 학습자에게 제시할 언어 자료를 선정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인터넷 새말이 조어법적 차원에서 가지는 이러한 특수성이 기존의 국어 조어법의 교육내용체계보다 심화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런 점이 더욱 더 심화를 위한 탐구학습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고, 이런 탐구 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학습자들이 국어 조어법에 대한 삶의 “체계를 확실히 정교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하다. 이들이 미시적 차원에서 매체 언어를 적절한

관점으로 다루고 있는 점이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인터넷 새말은 지금 현재 쓰이고 있는 학습자 즉, 낱 때부터 클릭러라티 세대에 속하게 된 중등 학습자에게 그 말 자체만으로도, 이러한 말이 교실에서 자료로 사용된다는 사실만으로도 강한 흥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이 자료는 다만 흥미를 위한 것으로 제시될 뿐, 결국은 교과서에서 배운 파생법과 합성법을 확인해 보는 수단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다루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 그러나 A조는 단순히 재미나 흥밋거리로 이것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런 수준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선행 학습 내용을 적용하여 확인하면서 이러한 단어들이 만들어지는 특수한 원리를 탐색하여 결국에는 국어 조어법의 체계를 정교하게 이해하게끔 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실제 수업에서 이런 수준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이들이 문법적 분석 방법으로 매체 언어의 특수한 본질에 대해 접근하고자 한 의도는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 생각된다. 매체 언어를 진지한 탐구의 대상으로 삼아 이해의 한 경로를 제시해 주는 학습 경험을 주고자 한 것이기 때문이다.

A조는 매우 진지하게 탐색하고 조사하면서 문법수업을 설계하는 과정을 거쳤고, 중간 점검을 위한 발표 시간에도 “제곧내”라는 사이버 공간에서 새롭게 쓰이고 있는 말을 발표 첫머리에 소개하며 비교적 성공적으로 발표를 진행해 나갔다.

중간 점검 발표 시간에는 연구자를 비롯한 수강생 전원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수결과 보완할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그런데 A조의 발표에 대해 다른 수강생이 수업 설계의 기본 의도에 대해 충분히 동감하면서도 ‘줄’, ‘애자’, ‘짐승돌’ 등의 말을 수업 시간에 탐구의 자료로 다루게끔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부적절하기 때문에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였다. 이러한 지적에 상당수 학생들이 동감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 부분은 매체 언어에 대해 문법교육에서 취할 수 있는 기술적 태도와 규범적 태도가 충돌하는 부분일 것이다. 연구자는 이에 대해 A조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매우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A조는 끝까지 기술적 태도를 취하고자 하였다. 바로 그러한 것이 인터넷 새말의 특

성이고, ‘실제 언어 자료’가 갖는 성질 그대로 학습자에게 제시하는 것이 더 낫다는 기술적 관점을 견지하면서, ‘삭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규범적인 부분의 부작용 정도를 완충시키고자 하였다. 바로 학습목표의 수위를 ‘장단점을 이는 것’에서 ‘올바른 언어생활의 강조’로 높인 것이다. A조의 최종 포트폴리오에서 해당 부분을 찾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단어 자료 설정의 문제

인터넷 새말을 예시로 들었다고는 하나, ‘애자’나 ‘즐’과 같이 비속어적인 느낌을 주는 것들을 단어 자료에 포함시킨 것은 학습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이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실제 학습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에 속한다는 점, 새말이나 유행어의 사용 이유와 관련하여 장단점을 언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속어적인 느낌을 주지 않는 단어 자료만으로는 단점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단어 자료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다만, 마지막에 이와 같은 새말 및 유행어의 사용의 장단점을 언급하는 것만으로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학습목표에 올바른 언어생활에 관한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겠다.

짧은 동안의 한 장면에서 본 것이지만, 이러한 수강생들의 의사결정과정은 차후 현장에서 문법수업을 이끌어 갈 예비 교사들이 매체 언어 자료의 특수성을 어떻게 살리면서 문법교육 내용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를 짐작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이다.

3. 문법수업 주체의 매체언어적 정체성

만약 연구자의 대학 시절에 이런 과제를 부여받았다면, A조와 같은 주제를 잡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과는 다른 문화자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인터넷 언어에 대해 민감하며, 이러한 언어들이 만들어지는 문화적 네트워크 안의 배경 이야기에

익숙하다.

A조의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수강생들은 제시되는 언어 자료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관심이 있음을 드러내는 유의 반응을 소란스럽지 않게 보였다. 그런데 발표를 듣고 있던 연구자는 ‘초식남’, ‘넌사벽’, ‘성인돌’, ‘짐승돌’ 등의 단어 뜻을 명확하게 모른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한 반응을 보일 수 없었다. 단어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언뜻 보아 조어론적으로 해당 단어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도 힘들었다. 연구실로 돌아와 인터넷에서 검색한 후에 그 뜻을 알고서 비로소 명료하게 A조가 제시한 수업 자료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단어들은 대부분 새롭게 만들어지게 된 구체적인 배경 이야기를 갖는다는 점에서 ‘옥떨메’ 류의 80~90년대 유행한 신어와 차이를 갖는다. 예를 들어 ‘짐승돌’은 그룹가수 <2PM>을, ‘개그돌’은 <2AM>을 가리키는데, 이것들은 모두 2009년에 활발하게 활동한 대중가요계의 아이돌 그룹들의 특성을 드러내는 단어로서, 나름대로의 어휘범주 체계가 파악되는 집단성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완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9년 아이돌 그룹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이 그룹들 각각의 특성을 알아야 하며, 이러한 별칭이 붙게 된 특정한 에피소드를 알아야 한다. 이것은 향가 등의 신라시대 노래를 배경설화 없이 이해하기 힘든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인터넷 새말 자료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수성, 즉 자료 자체에 부가되는 많은 양의 맥락적 정보의 공유 여부는 매우 중요한 차이를 가져오는데, ‘성인돌’을 보고 즉각적으로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수위 높은 뮤직비디오 장면을 떠올리는 주체와, ‘성인돌’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 채 ‘돌’이 접사로 쓰여서 파생적으로 형성되었음을 짐작할 뿐인 주체가 규범적 차원에서 행하게 될 가치 판단의 내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연구자는 수업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이러한 단어들을 언어 자료로 제시하는 데 매우 강한 규범적 태도를 보이던 몇몇 수강생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에피소드는 결국 매체 언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교육내용을 선정하여 구성하는 과정에서 매체언어적 정체성이 매우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하겠다. 그것이 그저 문법 시간에 분석되는 하

나의 단어라 할지라도 그 단어를 보는 학생들의 머릿속에는 그것들이 만들어진 매체적 환경이 한꺼번에 펼쳐지는 것을 기억한다면, 문법 교사는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미루어 짐작하면서 섬세한 경로의 수업 설계를 행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가 이미 주어져 있음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으리라 본다.

V. 결론 : 급변하는 언어 문화 환경과 문법교육의 대응

문법수업을 구성하는 두 주체들은 모두 동일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한국어 모어 화자이다. 이들은 학습의 대상으로 한국어 자체를 상정하고, 문법 교과와 논리에 따라 한국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상적인 진공 상태의 상정이다. 한국어는 실재물이고, 실재물은 구체적인 환경 속에서 존재하며, 한국어는 다양한 매체적 환경에서 존재한다. 이 매체적 환경과 이것이 복합적으로 만들어내는 기호의 세계는 동일한 한국어 공동체의 성원인 교사와 학습자를 서로 다른 하위 언어 공동체의 성원으로 가른다. 매체 환경 변화의 정도에 따라 이 가름의 간극은 상대적으로 더 커지면서 또는 더 작아지면서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리고 이러한 간극은 비단 문법교육뿐 아니라 국어교육 전체에서 발견되리라 본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문법교육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또는 매체 언어 환경의 변화에 따른 국어교육의 새로운 모색의 시점에서 문법교육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을 본고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문법교육의 본질에서 찾고자 한다.

- 문법 학습 1 : 언어에 대해 생각해 보는 교육 활동
의미 소통을 담당하는 모든 언어, 즉 다양한 양식의 기호의 본질과 속성에 대해 인식함

- 문법 학습 2 : 쪼개고 나누어 형해화(形骸化)해보는 교육 활동
다양한 양식의 기호로 이루어진 표현물을 틀을 이루는 구조물로 인식함
- 문법 학습 3 : 나의 언어적 정체성을 파악하는 교육 활동
복잡한 기호의 세계에서 구성되고 표현되는 언어적 자아로서의 나에
대해 인식함

문법은 언어의 틀이며 구성 규칙이다. 언어의 틀과 규칙에는 언어 주체의 세계에 대한 인식이 반영되고, 또 그 역도 성립한다. 따라서 언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언어 주체를 이해한다는 것, 그 언어 주체가 몸담고 있는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과 맞닿게 된다. 여기서의 ‘언어’를 ‘기호’로 바꾸면 결국 매체 환경에서의 기호의 이해에 문법을 연관시킨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인식과 이해가 매체 환경의 변화로 인해 생겨난 복합 모드의 표현물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의 정도로서 문법교육의 대응력이 평가된다고 보지 않는다. 문법교육은 그러한 생산과 표현의 근저(根底)에서 쉽사리 드러나지 않은 인식적 통찰력을 제공하고, 가장 기초적인 분석의 로직(logic)을 체득하게 하며, 가장 어렵게 형성되고 그만큼 변화 정도가 낮은 기호에 대한 개인적 지식과 신념적 태도를 형성시켜 준다고 믿는다. 단순히 포토샵을 잘 다루는 자와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데 가장 효과적인 포토샵 기법을 선택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의 차이는, 문법교육에서 주력해야 하는 부분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이런 점에서 문법교육은 가장 비실용적인 성과를 겨냥하면서 이루어지고, 동시에 그러하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실용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 본 논문은 2010. 2. 28. 투고되었으며, 2010. 3. 12. 심사가 시작되어 2010. 3. 31.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강창석(2007), 인터넷 시대의 국어 연구 방법론, 인문학지 34, 충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pp.1~26.
- 구본관(2001), 컴퓨터 통신 대화명의 조어 방식에 대한 연구, 텍스트언어학 10, 한국텍스트언어학회, pp.293~318.
- 권구천(1999), 교육 현장에서의 문법교육 실태와 문제점, 목원어문학 17, 목원대학교 국어교육과, pp.101~125.
- 김대행(2007), 매체 환경의 변화와 국어교육의 방향, 국어교육학연구 28, 국어교육학회, pp.5~36.
- 김대회(2008), 호주의 자국어 교육과정에서의 매체 언어 교육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33, 국어교육학회, pp.267~295.
- 김혜숙(2000), 매체 언어의 국어 교육적 수용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하여, 동악어문논집 36, 동악어문학회, pp.43~65.
- 백선기(2007), 미디어 그 기호학적 해석의 즐거움, 커뮤니케이션북스.
- 서유경(2005), ICT 기반의 국어과 교재 구성 방향, 국어교육학연구 24, 국어교육학회, pp.325~359.
- 송민규(2003), 사이버언어 연구의 몇 문제, 우리어문연구 21, 우리어문학회, pp.55~83.
- 송민규(2007), 가상 공간 신어의 생성, 한국어학 34, 한국어학회, pp.47~78.
- 시정곤(2006), 사이버 언어의 조어법 연구, 한국어학 31, 한국어학회, pp.215~243.
- 이기동·송민규(2005), 광고언어의 생성 단계: 단어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25, 우리어문학회, pp.7~33.
- 이수연(2005), 파생접미사 ‘-질’이 생산성과 의미: 인터넷상의 신조어를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 30,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이정복(2004), 인터넷 통신 언어 경어법의 특성과 사용 전략, 언어가학연구 30, 언어과학회, pp.221~254.
- 이정복(2005), 사회언어학으로 인터넷 통신 언어 분석하기: 최근의 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어학 27, 한국어학회, pp.37~79.
- 장경현(2006), 인터넷 블로그에 나타나는 종결 어미 ‘-지(요)’의 용법과 의미, 한국어의미학, 한국어의미학회, pp.179~202.
- 정현선(2004), 디지털 리터러시의 국어교육적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21, 국어교육학회, pp.5~42.
- 정현선(2007), 미디어 교육과 비판적 리터러시, 커뮤니케이션북스.
- 정현선(2009), 고등학교 국어과 선택과목 재구조화 방안에 관한 토론, 고교 국어 선택

- 과목 교육과정 구조 개선 방안 연구 토론회 자료집, 한국교육과정평가원, pp.35~37.
- 정혜승(2008), 문식성(literacy)의 변화와 기호학적 관점의 국어과 교육과정 모델 교육과정연구 26(4), pp.149~172.
- 최지현(2003), 사이버언어공동체와 국어교육, 국어교육학연구 18, 국어교육학회, pp.500~521.
- 니콜레트 그레이 지음, 최충식 옮김(1994), 레터링의 역사, 창지사.
- 마이클 뷰몬트 지음, 김주성 편역(1993), 타이포그래피 & 쉐더, 예경.
- 앤드류 해슬렘 지음, 송성재 옮김(2008), 북디자인 교과서, 안그라픽스.
- Ackermann, E.(2002), Language Games, Digital Writing, Emerging Literacies : Enhancing kid's natural gifts as narrators and notators, In (Dimitracopoulou, A., 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n Education"*, Proceedings of 3rd Hellenic Conference, 26-29/9/2002, University of Aegean, Rhodes, Greece, Kastaniotis/interactive, Volume 1, pp.31~38.
- Annabelle, L.(2003), Lesson in grammar : how ideology shapes the reporting of war, *Education Links* Vol. 66/67,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pp.18~20.
- Fukushima, T.(2006), A student-designed grammar quiz on the web : a constructive mode of grammar instruction, *Educational Media International* 43(1), Routledge, pp.75~85.
- Hill, S.(2004), Hot diggity! Findings from the Children of the new millennium project, Paper presented at Early Childhood Organisation Conference EDC 6 March 2004.
- Jarvis, H. & Szymczyk, M.(2009), Student views on learning grammar with web- and book-based materials, *ELT Journal march* 12, Oxford University Press, pp. 1~13.
- Kramer-Dahl, A.(2004), Abuses of grammar teaching : the role of crisis discourse in appropriating a potentially innovative language syllabus for Singapore schools, *Curriculum Journal* 15(1), Routledge, pp.69~90.
- Makin, L., Díaz, C. J. & McLachlan, C.(2007), Literacies in Childhood : Changing views, *Challenging practice*, Second edition, Elsevier Australia.
- Mantei, J. & Kervin, L.(2007), Looking for clarity amongst the challenges faced by teachers as they consider the role of ICT in classroom literacy learning experiences, In (Simpson, A., Ed.) *Future Directions in Literacy : International Conversations Conference*, 3-6/9/2007, The University of Sydney, Sydney University Press,

pp.170~188.

Prensky, M.(2001), Digital Natives, Digital Immigrants, *On the Horizon* 9(5), MCB University Press.

QCA(2007), English : Programme of study for key stage 3 and attainment targets (<http://ncdevwww.e3hosting.net/key-stages-3-and-4/subjects/key-stage-3/english/programme-of-study/index.aspx?tab=2> ; 2010년 2. 6 검색)

Richards, J. C., Platt, J. & Platt, H.(1992), Longman Dictionary of Language Teaching and Applied Linguistics, London : Longman.

Schneider, J(2005), Teaching grammar through community issues, *ELT Journal* 59(4), Oxford University Press, pp.298~305.

Seamon, M.(2001), Assessing the need for change in J-school Grammar Curricula,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Educator* 55(4), pp.60~69.

<초록>

문법교육과 매체 언어 문화

김은성

이 연구는 매체 언어 문화라는 국어교육의 주요한 배경을 문법교육의 시각에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매체, 언어, 문화, 이 세 개의 핵심어는 국어교육 전체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핵적인 요소이지만, 이것은 그 자체로 가시적인 의미를 가지기는 힘들다. 이것은 국어교육이 기획되고 실천되는 실제적인 단위에서 비로소 구체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이러한 실제적 단위로서 문법교육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문제를 설정하여 그 답을 찾고자 하였다.

첫째, 매체를 활용한 문법교육은 어떻게 새롭게 전개될 수 있을 것인가?

둘째, 매체 언어에 대한 문법교육의 기본 토대는 어떻게 확장되고 심화되어야 할 것인가?

셋째, 문법교육의 두 주체, 즉 교사와 학습자의 서로 다른 매체언어적 정체성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문법교육은 언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목적적 활동이다. 그러므로 문법교육에서는 그 대상인 언어에 대해 주의 깊게 집중하여 주목해야 하고, 언어의 생태 더 나아가서는 인간 언어 활동이 이루어지는 세계의 변화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에서 설정한 세 가지 연구문제들은 ‘매체’라는 변인이 우리의 언어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여 더 정교하게 문법교육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핵심어】 국어 문법교육, 매체, 매체언어, 문화, 매체언어적 정체성

<Abstract>

Teaching Grammar focusing on Media, Language, Culture

Kim, Eun-s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grammar and the media language culture in the educational perspective. The three core words of Media, language, culture are nucleus factors in the overall Korean language education, but they might not have practical meaning themselves. They will be eligible on the levels of concrete practice and design.

Therefore, considering grammar education as a practical stage, this study poses these questions : First, how can grammar education using media be unfolded in a creative way? Second, how should the basic territory be extended and deepened? Third, how can the different media-linguistic identities between teacher and learner be approached?

Grammar education is a purpose-oriented activity promoting deep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language. In the grammar class we should draw careful attention and focus, and swiftly address the transitions and changes of the world as well as those of the ecology of the language where the human language activities are activated.

With the above aspects, those three questions posed by this study will help us to understand and analyze the influences of media on Korean language culture and design a well-fitted model or scheme for Korean grammar education.

【Key words】 Korean grammar teaching, Media, Media language, Culture, Media-linguistic identity

【토론문】

“문법교육과 매체 언어 문화”에 대한 토론문

남가영(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어교육 안에서 매체언어의 문제가 언어를 ‘기호’로 바라보는 관점의 확장을 전제로 한다고 할 때, 문법교육은 언어가 직조하고 생산하는 텍스트 그 자체보다 일차적으로 그러한 생성의 근간이 되는 언어, 그리고 생성 로직(logic)으로서 규칙과 원리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매체 언어의 문제와 근원적인 차원에서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처럼 급변하는 언어 문화에 따라 국어교육을 새롭게 모색하는 과정에서 문법교육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그 가능성과 방향을 가늠하고 있는 본 연구는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자의 문제의식에 기본적으로 동조하면서, 몇 가지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토론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1. 문법교육과 매체언어의 문제를 연구자는, ‘매체를 활용한 문법 수업’, ‘매체 언어에 대한 문법 수업’, ‘문법 수업 소통 주체의 매체언어적 정체성’의 세 차원으로 나눠 살펴보고 있습니다. 국어교육이든, 문법교육이든, 현재 매체 언어의 문제는 첫 번째 차원을 넘어 ‘교육내용으로서 매체 언어’를 다루는 두 번째 차원에서 주로 그 방향과 가능성을 모색하고 개진하는 단계로 보입니다. 연구자가 제시한 규범적, 기술적, 비판적 관점은 비단 매체언어와 관련해서만 의미를 지니는 독특한 연구 과점이 아니라, 문법교육을 설계함에 있어 염두에 둘 수 있는 ‘언어를 다루는 차별화된 관점’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 안에서 매체 언어의 내용이

어떻게 다루어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장르 분석(genre analysis)’이나 ‘비판적 언어 인식(critical language awareness)’의 논의를 통해 현재 이론적인 차원에서는 일부 수용되고 있다고 보이며, 차후 그 구체화의 방식과 체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늘 부딪히게 되는 것은, 문법교육의 중핵으로 간주되었던 ‘언어와 문법에 대한 체계적, 구조적인 인식’과 이들 관점(과 그에 따른 내용)이 어떻게 정합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는 그만큼 기존의 문법교육 내용 체계가 공고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를테면, 그 연계 방식은, 기존 문법교육 내용에 매체언어와 관련한 새로운 연구 주제, 수업 주제가 추가적으로 도입되어 그 외연이 점차 확장되는 방식일 수도 있고, ‘매체언어’라는 통로를 통해 문법교육 체제의 개선에 기여하는 방식, 다시 말해 ‘언어’를 ‘기호’로서 다루는 확장된 관점을 통해 문법교육 자체의 판을 새롭게 모색하는 방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법교육이 그 핵심에 언어를 두고 있고 바로 그러한 점에서 매체언어와 가장 근본적인 면에서 맞닿아 있다는 논리 자체와, 그런 점에서 문법교육을 통해 새로운 언어문화 안에서 학습자가 언어적 자아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식과 통찰력을 길러줄 수 있다는 예측은 ‘논리적으로는’ 충분히 연계 가능하지만, 그 실체로서 문법교육의 체제가 구체화되지 않을 경우 ‘언어’라는 패를 쥐고 있는 문법교육 연구자들의 선언에만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가능하다면 대략적인 상이라도 그 구체적 실현태에 대한 연구자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2. 본 연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문법 수업 소통 주체의 매체언어적 정체성’을 지정한 부분일 것입니다. 문법 수업 소통 주체의 매체언어적 정체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매체적 환경과 이것이 복합적으로 만들어내는 기호의 세계가 결국 국어 공동체의 성원이 교사와 학습자를 서로 다른 하위 언어공동체의 성원으로 가르며, 이러한 간극은 비단 문법교육 뿐 아니라 국어교육 전체에서 발견된다.’는 연구자의 언급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의 차이로 인해 매체언어에 대한 문법수업의 현상 자체를 좀 더 중층적(中層的)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도 동의합니다.

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는, 매체언어적 정체성이 두 수업 주체의 소통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세 가지 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과 관련하여 토론지는 결국 그 소통의 방식 또한 ‘매체 언어에 대한 수업’(두 번째 차원)을 통해 접근할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변이(variety)’라는 개념이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이라는 것이 장르, 혹은 사용역에 따른 언어 사용 혹은 언어 실천의 다양성을 함의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할 때, 이는 결국 언어 주체의 문제와 무관할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매체에 따라 여러 장르 혹은 유형의 언어양식이 분화 가능하다고 할 때, 이러한 장르와 그 사용 주체는 물론 개념적으로는 서로 구별되는 실체이나, 실제적으로는 특정 장르(와 그에 따른 언어적 변이)와 특정 주체는 밀접하고 반복적인 연결 관계를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언어적 정체성’, ‘언어적 자아’라고 하는 것은, 언어로 직조되는 세계 속에서 ‘나’는 결국 ‘언어로 구성되고 표상되는 자아’라는, 근본적인 차원을 지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결국 ‘나’는 ‘내가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 일정 부분 드러나며 ‘내가 어떠한 언어로 드러나는가’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문법 학습 가운데 나의 언어적 정체성을 파악하는 활동이란 것도, 결국은 내가 사용하는 ‘나의 언어’에 대한 탐색을 통해 결과적으로 접근 가능한 것이고, 나의 언어를 온전히 장악하는 ‘전유’를 통해 언어적 자아로서 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나의 언어가 국어 공동체의 동질적인 언어가 아니라 하나의 변이형이라는 관점이 도입되고 소통될 수 있다면, 다양한 유형의 언어 변이형에 대한 기술적 전유비판적인 접근을 통해 언어 주체의 서로 다른 매체언어적 정체성 그 자체가 하나의 소통 대상이 되며 탐색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연구자께서 ‘서로 다른 매체언어적 감수성을 가진 두 주체의 공감적 상호작용의 지속’ 방안으로 제시한 사례를 보면, 이처럼 매체언어 수업을 통해 그 공감적 상호작용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방식을 넘어서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 가능성의 양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 수 있다면 그 관점과 논의를 공유하는 데 있어 더 도움이 될 듯합니다.